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서진희 (기학연 연구위원, 연세대 영어학 교수)

현대사회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하는데,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정보를 빨리 접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잠언 첫 장 서두에,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 어리석지 말고 슬기로우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슬기나 지식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게다가 적절한 시기에 얻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반면, 잠언에서 강조하는 슬기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가리키며,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을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지식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잠언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자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도 소위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혼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멸시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의인을 뜻하고, 미련한자는 악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 하나로서 무엇보다 정직성을 강조한다. 잠언 1장 3절에서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혼계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 있다. 2장 7절-9절에서도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 정직한 자이어야 하고, 정직할 때 선한 길 곧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정직한 자가 악인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악인의 특성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규정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명백한 사기나 드러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적당한 속임과 거짓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또 성숙의 한 과정으로 합리화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감수해야 하는 작은 손해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분명 이 정도의 수준을 가리키지 않는다. 잠언 15장 11절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래서 잘 모르는 “음부와 유명(Death and Destruction)”, 곧 히브리어의 스올과 아바돔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어리요” 라고,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잠언 16장 2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였다.

지난해 말, 대입 수능시험의 대량 부정행위로 시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휴대전화로 답을 제공하는 자들이나 제공받는 자들 어느 한쪽에서라도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정직성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결석한 친구를 위해 대출을 해준다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종종 부정행위가 적발

된다든지, 과제물을 베껴 낸다든지 하는 일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아예 대학의 낭만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큰 거짓과 작은 거짓은 죄의 비중 면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라면 똑같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Lip service, white lie 등도 진심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가능성이 없는 약속, 과장하는 말이나 문맥 없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아무 설명이 없이 전달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드러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짓이 만연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게 된다. 작은 거짓들이 쌓여 결국 사회의 커다란 부정과 부패를 만들게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깨어짐은 대체로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뢰의 상실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다.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습관적이다.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People of the lie)'에서는 악(evil)을 하나의 정신적 질환 상태로 보면서,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거짓된 속성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을 속여 악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단계로까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일종의 자폐 성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변화가 잘 안되는 중요한 성향으로서, 치료에 꼭 필요한 정직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집요한 태도라고 지적한다. 이를 빛을 피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본질인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불안전함을 은폐시키려, 스스로를 성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것도 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식과 위선으로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고 한다.

거짓이 악이며 질환이라는 주장은 정직에 대해 느낀했던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 악과 거짓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스캇 펙은 악의 본질적 요소가 자신의 죄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악인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이 있는 주위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게 마련이고, 악이란 언제나 거짓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자신의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직면할 줄 모르거나 직면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을 해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거짓이나 속임이 그렇게도 쉽사리 합리화되는 점이나, 또 우리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악의 요소를 우리 안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을 질환의 한 증세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스캇 펙은 프롬을 인용하면서, 악의 발생을 선택과 의지라는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악하게 지음을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오랜 선택들을 통하여 서서히 악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짓과 속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수록 우리 마음은 그만큼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반면에 정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질 것이다. 결국, 깨끗한 마음에 익숙해지면,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늘어나, 마침내는 거짓된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며, 반대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 자신을 거짓에 익숙하게 되어 점점 더 거짓된 행위를 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 버리고 말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본성이 자연 상태에서 악을 더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잠언 15장 12절처럼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는 성향이 분명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신앙은 듣는

것보다는 봄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 되며, 백 마디 말보다 의로운 한 행위가 신앙을 더 잘 대변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단이고, 순종이며 어떤 경우에는 작은 순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 결국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정직성이 기독교인이 적은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통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몇 해 전 극동방송의 표어가 정직과 성실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사실 신자이면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 할 텐데,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표어로 책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화려한 성경공부, 각종 훈련 프로그램, 열렬한 기도나 눈물나는 간증 등의 치장도 정결한 그릇일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거짓이 진정 악이라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거짓을 미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잠언 8장 13절에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한 행실 즉 거짓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조금이라도 정화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나누고 싶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